

구미시, 올해 안전예산 1766억 쏟아붓는다

드론 2대 도입 데이터 영상관계 시스템 구축 1826억 재난취약지역 정비 6개 사업 본격화

경북 구미시가 올해 안전 분야 예산을 지난 2025년보다 454억 원 늘린 1766억원으로 편성하고, 재난 대응부터 예방, 생활안전까지 전방위 안전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이달까지 드론 2대를 도입하고 드론 데이터 영상관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6년

재난안전상황실 드론 데이터 연계 구축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재난 발생 초기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수입된 영상과 데이터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즉시 연계된다. 대형 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대한 지원 요청은 물론 군·경·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연 대응에도 활용된다. 현장 판단과 지휘 체계의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장이다.

생활 밀착형 정책도 확대한다. 지난 2025년 어린이 안전인형극 4369명, 교통안전체험장 1449명, 안전골드벨 퀴즈대회 150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3795명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정비사업은 올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중추적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곳과 자연재해 위험개선구구 정비사업 5곳 등 총 6개 사업에 1826억·도비 포함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구미=박성환 기자 pbh@siminilbo.co.kr

해 보장금액은 2000만에서 27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은 1000만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5년에는 199건에 총 3억7900만원이 지급됐다. 실질적인 피해 보전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재난 취약지역 정비사업은 올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중추적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곳과 자연재해 위험개선구구 정비사업 5곳 등 총 6개 사업에 1826억·도비 포함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구미=박성환 기자 pbh@siminilbo.co.kr

보성군, '청년 드림-업' 프로젝트 박차

연말까지 6000만원 들여 취·창업업 최대 50만원 지원

전남 보성군은 청년들의 취업·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보성 청년 드림-업(DREAM-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000만원(고향사랑기부금 100%)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여력강화 지원금 최대 20만원 ▲취업·창업 활동지원금 최대 30만원 ▲취업성취지원금 2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력강화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언어능력시험(TOPIK), 토익·토플·토플 등 공인 어학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총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3회까지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시험의 응시자, 대·기관·단체에서 동일한 시험 응시료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창업 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 취업 관련 면접 준비 비용, 취업 실무교육비, 전문가 상담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30만원이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신청 가능하다. 공명서 작성, 취업 컨설팅, 창업 교육 수강, 창업 관련 도서 구매 등 실제 취업·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폭넓게 인정한다. '취업성취지원금'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취업에 신청한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게 2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하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 사업장 취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매일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민서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황승호 기자 whng04@siminilbo.co.kr



합천군, 중 소흥 국제우호도시대회 참가
합천군은 국제교류협의회와 함께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절강성 소흥에서 열린 '제6회 소흥 국제우호도시대회'에 참가해 국제우호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와 우호 증진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대회에 참석한 국제교류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오는 9월 '안전산업박람회'

경남도, 참가기업 공개모집

경남도는 도내 재난안전산업 분야 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열리는 '제1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는 9월 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민간·공공 구매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안전 관련 기업·기관 315개사 85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첨단 안전기술 제품 전시를 비롯해 국내 구매상담회, 해외 수출상담회,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안전산업 선진국 기업을 초청·유치하고,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 100인 이상을 초청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된다.

창원=김정현 기자 kjh@siminilbo.co.kr

충남도, '공공건축 원스톱 지원' 가동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전환 기획-심의-공모등 통합수행

충남도는 공공건축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행정 위탁체제로 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도의 공공건축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건축사업은 기본구상, 건축

이해 따라 건축기획부터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까지 공공건축 행정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도 한층 제고하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 통합지원 플랫폼은 도의 공공건축 안내, 설계,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제도 등 관련 업무와 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창구이다.

홍성=최복경 기자 cbg@siminilbo.co.kr

계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충남연구원이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 등 일부 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도는 이날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도입해 건축디자인 전문부서에서 직접 운영한다.

직별로는 캄보디아 22명, 필리핀 16명, 베트남 11명, 태국 8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아동 17명과 산모 9명에게 총 1911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진료·검사·임인·수술비, 산전진료와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4~5월 두달간 총 59명의 대상자를 발급했다. 국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9명 발급

영양군, '프로젝트 169' 큰 성과

출생-의료비등 1911만원 지원

전남 영양군이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과 이주인 임신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인 '프로젝트 169'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 169'는 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광주은행, 영양군출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임신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4~5월 두달간 총 59명의 대상자를 발급했다. 국

온열질환 맞춤형 구급체계 선제 가동

전남소방본부, 모든 구급차에 폭염대응 장비 구급차 출동 공백엔 소방펌프차 즉시 투입도

전남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맞춤형 구급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늘어나는 온열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기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로 전망돼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서도 최근

3년간 전남지역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총 8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73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바다, 산, 밭 등 야외 활동 공간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급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5월부터 전남 전역에서 운영하는 모든 구급차에 열음조기, 식염포도당, 이온음료 등 8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상시 적재한다. 현장 도파 즉시 환자의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공급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역내 구급차 출동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되는 구급 장비와 폭염 대응 장비(심폐소생술기) 폭염 대응 장비를 추가 탑재한다.

이를 통해 구급차와 다른 장비에 출동 중이더라도 온열질환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황승호 기자 whng04@siminilbo.co.kr

현업근로자 온열질환자 보호대책 강화

순천시, 휴게시설·휴식 점점 중대 경보엔 야외작업 저지

전남 순천시는 올해 장기간 폭염이 예상되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산발하는 상황에서 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산하 근로자 중 야외작업 근로자와 위험요인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근로자 6개 부서, 1183명을 대상으로 ▲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수 ▲음용조치 등 폭염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공업·도시

현장, 도로 유지보수 현장, 하수도 생활 민원 처리 현장 등 야외 작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체감온도 기록 및 일차장, 휴게시설 확보,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을 점검 점검한다.

또한 폭염중대경보 발표 후 위험도가 높고 판단될 경우 야외 작업을 자체적으로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온열질환 예방물품 분포기, 콜스카프 등을 배부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6월 혁신농업인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염 기본수칙과 행동요령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이민석 기자 lms@siminilbo.co.kr

파코르프 2급 지도자 자격검정

해남군, 우של체육관서 5일 개최

전국적인 파코르프 열풍 속에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올해 첫 자격검정이 해남에서 열린다.

(사)전라남도파코르프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전반기 파코르프 2급 지도자 자격 검정이 오는 5월 전남 해남군에서 개최된다.

이번 자격 검정은 전국 각지에서 총 520명의 응시자가 접수수를 마쳐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지필시험은 5일 오전 해남 우של체육관에서 실시되며, 파코르프 규정과 지도자 소양 등 전문 지식을 평가한다. 실기시험은 삼산파코르프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자들의 실제 경기 운영 능력과 현장 지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해남=정창현 기자 jcr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가족과 함께하는 브릭아티스트'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브릭아티스트' 청소년 진로체험 성공

전남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이 최근 수련관에서 지역내 가족 10팀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브릭아티스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고, 브릭을 활용한 조립 및 창의 과정을 경험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제공된 브릭 키트를 활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단계별 조립 활동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집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한편,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역할을 나누고 작품을 완성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끼고 뜻깊은 추억을 쌓았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황승호 기자 whng04@siminilbo.co.kr

서산시, 7·8월 반려동물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충남 서산시가 반려인의 반려동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7·8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반려동물 수간식 만들기 ▲반려동물 목욕 만들기 ▲반려동물 골사 만들기 ▲반려동물 노즈워크 만들기 등 4개 과정이 마련됐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수재간식 만들기 과정 1회차는 반려동물물 삼계탕을, 2회차는 고구마오징어떡볶이 케이크를, 3~4회차는 테일을 조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7월3·4·31일, 8월1일 총 4회 운영되며, 수강 인원은 회차당 20명이다.

반려동물 매번 봉투 파우치(폼팩) 만들기 과정은 7월9·24·25일 운영되며, 수강 인원은 회차당 16명이다.

골사 만들기 과정은 7월10·11일, 8월21·22일 운영되며, 수강 인원은 회차당 15명이다. 노즈워크 만들기 과정은 8월7·8일 운영되며, 수강 인원은 회차당 18명이다.

서산시이리미리리 누구나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산=최복경 기자 cbg@siminilbo.co.kr

예산군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충남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은 물론 돌장 적치와 불법 잠적 행위까지 포함된다.

군은 기간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범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필요시 행사 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김필자 기자 kus@siminilbo.co.kr

장진군 한국민화유지증, 8 현직 순회전 개최

대한민국 전통 문화인 '민화'의 파격적인 현대성과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일목 현지에 널리 알리는 대규모 순회 전시가 추진된다.

전남 장진군 한국민화유지증과 장진 영림의 조선민화박물관은 주요시(하남문화원) 및 주요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민화, 조선의 팝 아트' 순회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투어링 케이-아트(Touring K-Ar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이날 11일부터 오는 8월8일까지 주요시(하남문화원) 미래 갤러리에서의 전시에 이어 8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

료 주요한국문화원 '갤러리 美'에서의 전시까지 릴레이로 총 4달간 진행된다.

이번에 일본에서 선보이는 '민화, 조선의 팝 아트'전은 한국 민화유지증 소속기관과의 긴밀하게 다년간 진행된 시리즈 중 2022년과 2023년 주제해의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장진=정창현 기자 jcrs@siminilbo.co.kr

진도군, 공용 전기차량 배터리 안전점검

전남 진도군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군에서 운영 중인 전기 공용차량 31대의 배터리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진도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됐다.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전문 점검 인력이 현장 방문해 진행했으며, 차량별마다 배터리 상태와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배터리 이상 유무 진단, 충전 상태 확인, 차량 안전관리 사항 안내 등을 통해 전기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용 전기차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진행한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별 배터리 상태를 세밀히 확인했고, 앞으로는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공용차량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황승호 기자 whng04@siminilbo.co.kr